

# '31일 바다의 날'

30일 여수서 기념식... 韓총리 등 3,000여명 참석

'제 13회 바다의 날'(5월31일)을 맞아 전남지역에서 바다체험, 해군 합정 공개, 해양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 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11월)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의 경우는 바다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기념식을 하루 앞당겨 30일 개최된다.

정부 기념식은 30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시 오동도에서 열린다. 기념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장승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해양수산관계자,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해양의 가치와 발전가능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언급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승수 총리는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공헌한 기업인과 어업인 등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여수시는 28일 수협과 특전사동맹회 주관으로 여수시 오동도 앞 해상에서 수중정화 활동과 함께 바다 사랑 홍보전을 갖는다. 오는 29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오동도에서 국내 유일의 해양화가 박진용 화백의 그림 등 해양사진 그림전이 열린다.

또 29일부터 31일까지 해군과 해경이 각각 4천200여급 왕건함과 3천4급 대평양호를 동원, 여수신항 일대에서 합정공개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여수 종합동 해양공원 일대에서는 바다체험활동으로 선박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물고기 잡기, 바다숲 가꾸기, 터치풀 체험, 바닷속 인어체험, 바다숲 전시장 꾸미기 등 열리게 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도 28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 그림그리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바다로 세계로 전국급짓기 대회'와 목포항 일원에서는 바닷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항만대청소를 실시하게 된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 도심속의 산 지키고 가꾸는 법 배워요

## '환경 파수꾼' 광주 앞산뒷산 아카데미

"서울에서는 가재나 꿩, 도롱뇽 등을 보려면 북한산 등 국립공원으로 가야지만 광주에선 마을 뒷산만 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환경을 잃지 않으려면 지자체가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광주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2회 광주 앞산뒷산 아카데미'에 참여한 20여명의 시민들은 민생환 서울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의 설명에 고개를 연달아 끄덕였다. '동네 환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진다'는 데 대한 공감의 표시였다. 이 때문에 수강생들은 민 처장의 설명을 행여나 농칠세라 꼼꼼히 수첩에 받아 적고 있었다.

"산을 모니터링 할 때 모든 환경을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 자기 역량에 맞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책로만 모니터링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느 산책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지, 어느 곳이 필요 없는지 등 파악해서 산책로를 즐기는 것도 산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요." 어떤 식물, 동물, 곤충이 살고 있는지, 습지가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비가 내리면 물길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등 마을 숲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시작되자 수강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환경보호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환경과 맞지 않은 화과 같은 식물은 다른 큰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때론 제거해줘야 해요." "산책로 철조망 하나를 칠 때 도 왼쪽에 설치하느냐 오른쪽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주위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도로 건설이나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한새봉에서 '제2회 광주 앞산뒷산 아카데미' 수강생 20여명이 도심지역 산을 모니터링 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앞산뒷산 지키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도로 개설 등으로 훼손돼 가고 있는 도심지역 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 무등산 자락 보호... 산책로·나무 개수 등 모니터링 20여명 수강생, 후손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앞장

아파트 신축으로 끊어진 61개의 무등산 자락 동네 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의 회원들이다. 2년 전만 해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각기 활동하던 사람들이 '광주 생명의 숲'이 지난해 5월 한데로 묶어 공동체를 형성했다. 광주시 도심 '앞산뒷산 지키기'들이 씀이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3차례에 걸쳐 마을 숲 모니터링 방법과 대구시 앞산 공동체 등을 방문하며 도심의 산을 지키고 가꾸는 법을 배우게 된다. 광주 생명의 숲 김경원 사무국장은 "전통적인 지식 없이 오로지 우리 환경을 지켜야 하겠다는 뜻을 지닌 분들을 한데 모아 교육을 하

기 때문에 습득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단순히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지역 환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집에서 주로 자식을 키우던 '어머니'들로 순전히 '우리 마을 산'을 지켜야겠다는 뜻으로 모임 '아마추어' 환경운동가들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애정은 전문 운동가 못지않다. 이들은 민 사무처장의 설명에 "산책로를 어떻게 조사해서 바꾼다는 건가요" "그 많은 나무 개수를 어떻게 다 세라는 건가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열성을 보였다. "산책로의 경우 길 양쪽에 한 명씩 서서 높이

를 맞춘 후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연결된 곳 가운데 높이를 재면 양쪽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다른 산책로와 비교하면서 산하게 훼손된 곳 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날 찾은 한새봉 밭자락에는 밭과 논 330여㎡가 조성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오는 물로 마르지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북구 망월동(국도 29호선)부터 첨단산업단지 진입로까지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어 일대의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새봉 지키기들은 "지식이나 힘이 부족해서 도로 개설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 개발에만 앞장서온 인간들이 이전 후손들과 지구를 위해서 야고고 사랑해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우리 와 가장 가까운 마을 산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 CO2 해양 생태계도 파괴

## 바닷물 급속 산성화로 산호·조개류 뼈대 부식

대기중 이산화탄소 급증으로 바닷물이 급속히 산성화하면서 불가사리와 산호, 조개류를 비롯한 많은 해양동물들의 껍데기와 뼈대가 부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연구기관 태평양 해양환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바다의 산성화는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지만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 멕시코에서 캐나다에 이르는 북미 태평양 연안 대륙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사이언스지 최신호에서 밝혔다. 이들은 수심 150~200m의 산성수

가 바다 표면에 가깝게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급속히 후반에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런 현상으로 대륙붕 연안 생태계는 과학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해양 산성화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산성수가 불꽃과 여름철에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장기적인 뒤집기 주기에 따라 대륙붕으로 산성수가 솟아오른 것으로 보고 있던 하지만 '해양호흡'이라고 불리는 자연 현상만으로는 이처럼 부식성이 높은 산성수의 등장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인위적인 온실가스 요인으로 설명이 된다고 밝혔다. 바다는 지난 200년동안 약 5천250억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저장해 왔다. /연합뉴스

# 지리산 반달곰 발자국을 찾아서

## 환경부, 자연친화 '국립공원 생태관광' 도입

지리산국립공원 등 유명 국립공원을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Eco-tourism)'이 도입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태안해안, 오대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사업은 국립공원별로 특성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탐방객들에게 해설, 강의, 체험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는 생태관광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첫 프로그램으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과 함께 거닐어 보아요' 시범사업이 1박2일 일정(5월 24일, 6월7일, 6월21일 등 3회)으로 진행된다. 또 태안해안국립공원(6월14일, 6월21일 등 2회)과 오대산국립공원(6월14일, 6월 22일 등 2회)에서도 1박2일이나 당일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오대산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역사여행'이 각각 운영된다. 특히 지리산 생태관광에 참여하면 반달곰의 특성, 반달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야생동물 발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지리산(061-783-9100) 등 해당 국립공원의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전량 에너지화

## 환경부 2020년까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버려져 온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 현재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가연성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고형연

료화(RDF) 시설 20곳과 전용발전 시설 10곳,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곳을 늘리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화 종합대책이 추진되면 2020년까지 ▲원유 1천200만 배럴(1조176억원) 대체효과 ▲온실가스 834만 톤 감축 ▲폐기물 처리비용 2조9천400억원 절감 등 연간 4조803억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5만개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용저대출 최도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인접

분양문의 062-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빌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양사: (주)지음지산업개발

**地友 부동산컨설팅**  
 본선동 남구청앞 슬퍼터너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덕적원모집

**대표 임근철**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 부동산 권리 분석사
- 부동산 분양 상담사
- 초담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 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매매**

- ▶광주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4,000㎡ 30m 계획도로 90m형 미당 24만원
- ▶광산구 선암동 대지 374㎡ 미당 30만원 주거지역 (건물있음)
-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1,782㎡ 4,231㎡ 미당 70억(분할가능)
- ▶수완지구 아파트 밑잡지역 종로 입구 상업용지 500㎡ 미당 190만
- ▶수완지구 850㎡ 대로변 버스정류장 앞 상업용지 820㎡ 미당 300만
-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모빌부동산 매매 (모빌 허가필)**

- {전남 회성군 도곡면 천안리 4,628㎡ 3.3㎡당 120만원

**상가임대**

- ▶북구 양산동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권
- 생 1층 124㎡ 보증금 6,000만 월200만
- 2층 248㎡ 보증금 4천 월170만
- 3층 248㎡ 보증금 4천 월150만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자상,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치과주치장 및 원외 주치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라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콘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생계형, 용식, 호프, 꼬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경영진단·인테리어

- ▶사구 매립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 ▶사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 5십만
- ▶사구 생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 ▶사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 ▶사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 ▶사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 ▶사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 ▶사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 ▶광산구 쌍림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 ▶사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 ▶사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창업 상담(창업비용 2천만원에서 10억까지 다양) 매개 임대수시 접수합니다.※